

새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2025년 7월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착공을 선포하던 지난 2월로부터 불과 몇 달 사이에 많은 것이 몰라보게 변하였다고, 말과 글이 아닌 실제적인 이러한 눈앞의 전면상은 지방발전을 강력히 추동해 나가려는 우리 당의 옹대한 구상과 확고부동한 의지, 그 실천력을 직관적으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촌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들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우리당 건설정책은 부단히 새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이며 그 수립과 집행에서는 절대적인 표본이나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건설사업이 명실공히 미래에 대한 개척으로 되자면 이미 축적된 건설잠재력을 장려하는 것과 함께 선진적인 것을 적극 지향하며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새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

새겨볼수록 조국땅 방방곡곡에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펼쳐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천하제일락원으로 전면시키시려는 절세위인의 승고한 응지가 어려있는 뜻깊은 가르침이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은 모든 것이 최상의 수준으로 되여야 한다는 승고한 뜻을 안으시고 끊임없는 사색과 실천으로 우리의 건축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들을 마련하시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줄기차게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에 떠받들리여 이 땅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식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으니 일군들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아래 온 나라 방방곡곡에 더욱더 황홀하고 눈부신 실체들이 줄기차게 솟구쳐오르리라는 것을 가슴뿌듯이 확신하였다.